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가을호 | 2013년 11월 5일

발행인 유병우
 편집인 이성운·한석홍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11번지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택시산업 정상화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

사랑하는 16만 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여름 기승을 부렸던 뜨거웠던 더위도 한줄기 서늘한 가을바람에 물러나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황금빛 들녘에는 1년 동안 공들였던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땀 흘린 만큼 풍성한 수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우리 연합회에서는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님을 비롯한 16만4천여

사업자님의 천군만마와 같은 열렬한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320회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때를 맞추어 개인택시 현안 문제 해결에 결승점을 눈앞에 둔 마라톤 처럼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지면을 통해 간단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 여형구 차관의 연합회 방문에 이어, 10월 10일에

는 연합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서울조합 국철희, 부산조합 박권수, 경기조합 조창영, 경북조합 서돌식)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여형구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개인택시업계의 경영악화 해결과 이에 따른 제도의 법제화 등을 건의 하였으며, 여형구 차관은 국회와 정부의 택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상당부분 정책에 반영되리라고 전망 하고, '대중교통법' 이든 '택시발전법' 이든 중요한 것은 택시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업계의 협조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이번 기회에 택시문제를 모두 꺼내놓고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여 기대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당일 연합회 회장단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연료다변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등을 건의 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10월 16일에는 국회 '기획재정

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세종시 청사 앞에서 회장을 비롯하여 김성우 대전이사장, 김혜경 충남 이사장님을 비롯한 연합회 임·직원 및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택시업계 현안문제인 '택시부가가치세 감면' '연료다변화' '중앙정부의 지방 공공요금 규제대상에서 택시요금 제외'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집회 후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개인택시 업계가 처한 고충을 호소하고 '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적극 건의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연합회에서는 관계부처 실무자와 수십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개인택시업계 현안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13. 6. 24.)과 관련하여 연합회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우리의 핵심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 하였습니다. 당연합회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어 택시산업이 반드시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면에 계속〉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13-2-740 (2013. 9. 26 현재)

신한My-Taxi행복대출

개인택시 사장님께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를 우대하여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보험담보 대출상품입니다

대출금리 최저 연 5.06% 이상

(원금분할상환방식, 금융채6개월물, 2013. 9. 23 기준 / 추가거래에 따른 우대 최대 0.6% 할인금리 적용한 경우)

-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일상상환: 1년 이하 · 원금분할상환: 3년 이상~5년 이하
- 준비서류 ·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 차량등록원부 · 소득증명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고금리 할부대출 전환은 MyCar 신차 대출 신차구입은 역시! S-MORE MyCar대출

대출금리 최저 연 4.82% 이상

(COFIX(잔액) + 2.6%, 6개월 변동금리, 2013. 9. 23 기준 / 추가거래에 따른 우대 최대 0.8% 할인금리 적용한 경우)



행운 이벤트

- 대상 : S-More MyCar대출, MyCar신차대출, My-Taxi행복대출 중 한가지를 신규 가입한 고객님
- 당첨자 선정 : 대상 고객 중 2013명을 추첨
- 기간 : 2013. 10. 14 ~ 2013. 12. 20
- 제 공 경 품 : 주유상품권, 블랙박스, 영화쿠폰, 해피콘 등
- 당첨자 발표 : 2013. 12. 23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본인확인, 경품배송 및 제세공과금 처리가 불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적인 계약이 없는 한 신한은행은 신한카드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관한 모든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77-8000, 1544-8000, 1599-8000

※대출 약정에 따른 부대비용(인지세) 중 50%는 고객부담이며, 대출상환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 후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참조 또는 가까운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부과세 면제 · 연료다변화 관철에 연합회 총력

유병우 회장, 국회 · 국토부에 강력 건의

우리 연합회 유병우 회장은 하반기 연합회 추진 방향을 '택시관련법'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연합회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대중 교통 육성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가칭 택시법)'과 정부가 지난 6월 24일 국회에 제출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가칭 택시발전법) 등 2건의 법률안을 놓고 국회 입법 분위기를 저울질 해왔다.

우리 연합회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전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을 재결의하는데 따른 부담을 느끼고 택시발전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따라서 우리 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택시관련법과 관련하여 '택시발전법'이 국회 통과에 대비 하여 택시지원법이 국회 법안 심의 과정때 우리 개인 택시업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넘나들면서 물밑작업을 벌여왔다.

또한 유병우 회장은 정부와도 긴밀하



▲ 여형구 국토 교통부 차관과 택시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연합회 회장단 조창영, 박권수 부회장, 유병우 회장, 여형구 차관, 서돌식·국철희 부회장(왼쪽에서 부터)

게 법안 조문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여형구 국토 교통부 차관을 연합회로 초청 16개 이사장들이 함께 개인업계의 현안을 소상하게 전달하고 정부가 입법 발의하는 '택시발전법'에 택시업계의 발전적 제도가 포함해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10월 16일에는 유병우 회장은 국철희, 박권수, 조창영, 서돌식 부회장단과 함께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 교통부를

방문 여형구 차관을 면담하고 개인택시업계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 연합회 유병우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택시 관련 법률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유병우 회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택시발전법의 법률안 조문중 개인 택시업계를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 제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안 심의 내용중 '택시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택시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택시 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경우 개인택시 근간을 이루고 있는 면허등록제, 양도·양수 금지 등 제도 개선이 심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연합회가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술 기자>

<1면에 이어>

정부안 심의내용 중

“택시면허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택시면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이나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경우 개인택시의근간을 이루고 있는 면허 등록제, 양도·양수 금지 등 제도 개선이 심의내용에 포함 될 수 있으므로 면허제도, 양도·양수 금지 등 택시사업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의내용과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사업구역별 현 택시 총량제 산정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중·소도시는 대기영업 운행이 대부분인데 택시총량제 산정방법에서 거리실차율만 적용 받고 시간실차율은 적용 받지 못해 공급과잉을 초래함으로 시간실차율을 추가하여 공급과잉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 유병우 회장을 비롯 김성우(대전) 김해경(충남) 이사장이 조합원과 함께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복지기금의 설치 단체를 택시운송사업자 단체에서 국가, 유류카드사(신한, 현대, 롯데), LPG 업계 등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유류카드사, LPG업계, 택시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 지원, 정부의 예산안을 기초로 하여 복지기금을 조성하므로써 사업자의 부담없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택시 감차보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택시운임·요금의 2년 정례화

및 정부물가관리품목 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택시가 여객교통수단이라는 특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삭제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내 택시 통행 허용”을 해야합니다.

또한 택시연료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료 다변화를 통하여 경쟁을 유도하므로써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으며, 차량환경점검제도 조합 위탁, 불법여객운송행위 처벌 강화 (콜밴, 렌터카, 자가용의 불법여객운송

행위) 등 택시운송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업자 여러분!

달랑 몇 장 남은 달력이 세월의 빠름을 느끼게 합니다.

년 초에 세웠던 야심찬 계획이 일부 확실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한결음도 쉬지 않고 달려 나가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연합회의 존재 이유인 사업자 권익보호를 한 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연합회의 힘의 원천은 16만 4천여 명의 단결된 힘이라고 믿습니다.

연합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느 때 보다 택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 사업자 여러분의 지혜로운 조언과 기탄없는 충고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태내에 평안과 만복이 깃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국회 법안소위 열어 빠른 시일내 입법추진

Power Interview

2013년

1월 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여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택시법')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1월 22일 국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고 또한 정부가 택시법 대체 입법으로 지난 6월24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지원법으로 칭함)을 국회에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수 년 동안 경영난에 허덕이는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올 정기국회에서는 택시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본지는 새누리당 간사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을 만나 절박한 심정으로 인터뷰를 했다.

▲ 222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통과된 '택시법'이 국회에 이송되어 8개월째 계류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발전법'도 지난 6월24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두 법률안 중 하나를 선택 의결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택시문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된 이후 이처럼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택시법의 국회통과는 그동안 택시정책에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했던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유효적절한 택시정책의 대안마련을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비록 전임 정부에서 내린 결정이기는 합니다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다시 택시법을 의결하기에는 국회와 정부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정부가 택시발전법을 토대로 택시4단체*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해 온 만큼 택시발전법에 관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택시4단체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16만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영난 속에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반환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정부보다는

민생정치 구현을 약속하고 있는 국회가 있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티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택시업계는 택시발전법도 차선책으로 받아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택시발전법률안의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중 '택시면허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는 기존 사업자를 규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반대로 정부의 지원만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강석호 의원 약력

- 제 18·19대 국회의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
- (사)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 (사)대한산악연맹 경상북도 연맹 회장
-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 지난 12일 요금인상을 단행한 서울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택시의 승차거부행위에 대해 시민과 언론의 반응은 매우 비판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택시업계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택시업계가 고객인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 불합리한 규제목적으로 택시발전법이 활용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택시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 위원회가 업계의 우려와 같이 '기존 사업자를 규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적극적으로 택시정책을 검토·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안 제5조제2항〉

1.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조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송사업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5.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동 위원회의 기능은 7개항의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것인데, 이들 항목은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 우리 개인택시업계는 택시운송사업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중 '택시면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도 법안토론 과정에서 개인택시 업계의 견해가 반영되기를 원하는데요, 새누리당 간사이신 강석호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현재 매우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은 택시의 과잉공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그런 만큼 법안의 논의과정에서 택시의 수급조절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택시업계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업계의 견해가 반영될 통로가 보장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 산적한 정치일정이 있지만 택시관련 법안도 대중교통의 한축인 택시업계를 살리는 정치이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대해도 될는지요.

☞ 염려스러운 것은, 야당이 모든 법안심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11월 국회에서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심도있는 논의와 빠른 시간 내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3년

2013년 1월 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여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택시법으로 칭함)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1월 22일 국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고 또한 정부가 택시법 대체입법으로 지난 6월24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지원법으로 칭함)을 국회에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중이다.

최근 수년동안 경영난에 허덕이는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올 정기국회에서는 택시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본지는 민주당 간사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을 만나 절박한 심정으로 인터뷰를 했다.

▲ 222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통과된 '택시법' 이 국회에 이송되어 8개월째 계류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지원법' 도 지난 6월24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두 법률안중 하나를 선택 의결해야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작년 12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택시법'의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 시행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안타깝고 분통한 일이었지만 그동안 등한시되어왔던 택시업계와 종사자들의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여론의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작지만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염원하는 업계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이목이 또 한번 국회에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자임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택시지원법' 정부안에 택시업계와 이용자들의 권리와 편의에 필요한 부분이 빠지진 않았는지 신중하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번 법안심사에서 민주당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은 택시업계와 종사자들의 합의가 없이는 정부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민주당 이윤석 의원

이윤석 의원 약력

- 제 5, 6, 7대 전남도의원(제7대 전남도의 회장)
- 제 18·19대 국회의원
- 국회 민주당 원내부대표
- 국회환경포럼 회장
-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 16만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영난 속에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반환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정부보다는 민생정치 구현을 약속하고 있는 국회가 있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티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택시 업계는 택시지원법도 차선책으로 받아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택시지원법률안중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내용중 '택시면허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는 기존 사업자를 규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택시업계의 우려는 공감하는 바가 큼니다. 그 동안 정부시책이 휘둘러서 피해만 본 경험이 그러한 우려를 더 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위원회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택시정책심의위원회도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면 택시업계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역할을 할 것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규제의 도구화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제도도 성패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언급된 택시정책심의위원회도 결국 구성원들의 소양이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법안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택시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선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 개인택시업계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내용중 '택시면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도 법안토론 과정에서 개인택시 업계가 반영되기를 원하는데요. 민주당의 간사이신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택시업계가 겪고있는 어려움의 주요원인으로 공급과다라는 의견이 정부와 업계에서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법안심사과정에서 당연히 수급조절문제도 다뤄질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주도의 수급조절시책이 택시업계 주도의 수급조절시책이 돼야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성안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안모색에 힘쓰겠습니다.

▲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 산적한 정치일정이 있지만 택시관련 법안도 대중교통의 한축인 택시업계를 살리는 정치이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되리라 믿습니다. 기대해도 될지요.

민생문제에는 의원 개개인의 철학만 있을 뿐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택시업계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에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법안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피니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라!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상익

1980년도 들어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일거리가 많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다.

도시 인구집중으로 여기저기 택지가 개발되어 현재 대부분의 도시는 시가지가 3~4배정도 확장되었다. 경제발전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되어 주민의 주거공간과 생활공간이 그만큼 넓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시가지가 확장되면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건물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음식점 및 각종 상점 마트 등이 들어서

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지 확장전 음식점이 100개였다면 시가지 확장후 110개가 된다는 것이다. 시가지가 넓어지고 모든 생활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인구가 증가 되어야 하나 일부 신흥 도시나 수도권권의 몇몇 도시들을 빼고는 전국의 대부분 도시와 군지역은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거나 증가가 미비한 가운데 택지 개발로 인해 시가지가 넓어지다 보니 유동인구에 따라 상업이 잘되는 지역은 잘되고 안되는 지역은 파리만 날릴 지경이다.

시가지가 넓어짐으로 인해 상업지역, 위락지역,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터미널, 대학교, 대단위 아파트 앞에만 유동인구가 빈번하고 사람들이 밀집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택시 승강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백화점 및 마트에서

는 스스로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였으나 출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택시 기사 및 승객이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추후 재 설치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경우가 많았다.

택시 승객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던 없던 간에 본인이 편한 곳(보통 정문 앞)에서 택시를 타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무용지물로 반드시 고객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제는 승객이 없는데도 무작정 넓은 시내를 누비(순회 배회식 운행)며 택시 승객을 찾아다니는 시대는 지났다.

아무리 시내를 누벼봐야 승객은 찾아보기 힘들고 아까운 연료만 낭비하기 때문이다. 이리다 보니 전국 개인택시 중 75%(법인택시 콜 장착율 58%)는 콜을 장착하여 승객 호출(고정 배치식 운행)이나 승강장에 대기하며 승객을 맞이하고 있다.

택시는 유동인구가 빈번하고 상업이 발달된 지역에 모여들게 되어있다. 또한 자가용이 없는 주민은 택시를 편안하게 타려고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자가용을 가진 고객에게만 편리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다. 자가용이 없는 고객은 편리하고 자유로운 쇼핑도 할 수 없단 말인가? 편리하게 택시도 탈수 없단 말인가?

유동인구가 빈번하고 상업이 발달된 지역에 택시 승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대형건물이나 쇼핑센터건물이 들어설 경우 교통영향평가에 반드시 택시 승강장도 포함시켜야 한다.

택시 승강장 설치장소 또한 승객이 불편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애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경주개인택시 최동섭 조합원 아들 최성환, 2013 추석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에 등극

최동섭 조합원의 아들 성환군이 2013 추석 장사 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로 등극하자 경주 개인택시지부가 축하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경북 경산시에서 열린 IBK 기업은행 주최 2013년 추석 장사 씨름대회에서

경주 개인택시 지부 최동섭 조합원의 아들 성환군이 한라장사를 들어 올렸다.

이날 한라장사 결승전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이었으나 최성환군은 등배지로 상대를 제압했다.

현재 동아대학교에 재학중인 최성환

군은 대학생으로는 이만기 장사 이후 30년만에 쟁쟁한 실업팀 선수들을 제압하고 한라장사에 등극했다.

최성환군이 한라장사로 등극하자 경주지부 조합원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축하와 격려를 보내고 천하장사에 등

극할 것을 바랐다. 최성환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하며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천하장사대회에서도 4강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신의 일상에 차이를 만듭니다

2014 ART COLLECTION

올가을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 2014 르노삼성자동차 ART COLLECTION 출시

당신의 일상에 예술적 영감을 더해줄 특별한 프리미엄 옵션들을 이제 기본 사양으로 만나보세요. 최고급 나파가죽 시트를 비롯해 바이저는 헤드램프, 보스오디오, 전후방 LED램프, 하이패스탑재 전자식 룸미러 등 최첨단 옵션들을 특별한 가격에 소유할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프리미엄 나파가죽 시트 (SM7 LE 사양)	가운뎃배에 나파가죽 시트 (SM5 LE 사양)	메디칼론 최고급 가죽 시트 (SM9 LE 사양)	크리에이티브 컬러 탁월한 질감의 최고급 가죽 시트	각이 다른 사운드의 보스오디오 (SM9 LE 기본사양)	바이저는 어댑티브 헤드램프 (SM7 LE 기본사양) (SM5 LE 기본사양)

장부 공간 표준 면비 및 용량 • SM5 2.0 CVT(11인치) : 복합연비 12.6km/ℓ (도심 : 11.9km/ℓ, 고속도로 : 14.1km/ℓ), 무단변속기, CO₂ 배출량 138g/km, 배기량 : 1,996cc, 공차중량 1,415kg, 350km • SM3 : 복합연비 15.0km/ℓ (도심 : 13.2km/ℓ, 고속도로 : 17.9km/ℓ), 무단변속기, CO₂ 배출량 114g/km, 배기량 : 1,598cc, 공차중량 1,250kg, 250km • SM7 VQ25 : 복합연비 10.2km/ℓ (도심 : 8.9km/ℓ, 고속도로 : 12.2km/ℓ), 자동 6단, CO₂ 배출량 174g/km, 배기량 : 2,495cc, 공차중량 1,639kg, 450km • SM9 디젤 2.0 2WD : 복합연비 13.2km/ℓ (도심 : 11.7km/ℓ, 고속도로 : 15.4km/ℓ), 자동 6단, CO₂ 배출량 151g/km, 배기량 : 1,996cc, 공차중량 1,700kg, 350km • SM5 디젤 2.0 4WD : 복합연비 12.8km/ℓ (도심 : 11.6km/ℓ, 고속도로 : 15.0km/ℓ), 자동 6단, CO₂ 배출량 159g/km, 배기량 : 1,996cc, 공차중량 1,730kg, 350km * 위 옵션은 표준오디오 외의 옵션과 선택 도색, 안전벨트, 차량상대 및 주차감지등의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1000-3000(1000-3000)나 가까운 지점 및 홈페이지 (www.renaultsamsung.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RENAULT SAMSUNG MOTORS



조합탐방

제주조합을 가다

보상감차 확대 실행

택시 연료 다변화 사업도 추진



인구53만 4715명, 면적1845km². 국내 광역 자치단 체중 제일작은 제주도는 ◆생물권보존지역◆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인증으로 유네스코 3관왕이다.

여기에서 세계 440곳의 명소를 대상으로 세계인이 참여하여 실시한 인터넷 투표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뽑힌 유명관광지다. 개인택시 3919대를 품고있는 제주조합은 상주인구 비례로 따지면 택시가 엄청나게 과잉공급 되었다.

제주도청은 전국 최대관광지에다 국제공항이 있어 인구의 유동성이 높은 지역특성을 고려 택시수요를 결정하면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지나치게 부풀려 제주지역 택시 운수사업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에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 9백69만명에 불과 합니다. 하루평균 2만6천5백48명이 제주를 찾고 있는데 제주지역택시운영 대수는 5424대나 됩니다. 제주도가 실시한 교통량 조사에서도 1908대나 공급과잉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조합원들의 운수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감차보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고영철이사는 감차보상을 택시 경쟁력 회복 해법으로 제시한다.

◇ 3년째 감차보상 실시

2011년 1월1일 제10대 이사장에 취임한 고영철 이사는 전임 이사장이 추진하던 감차보상을 이어받아 감차보상 추진에 조합역량을 집중했다. 택시운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감차보상은 전임이사장때부터 추진했던 현안이 있지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담보상태였다. 감차보상 추진을 조합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고이사는 제주도청과 의회를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택시공급과잉의 책임이 도에 있음을 제시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주도청예산만으로 보상예산을

편성해줄것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감차정책이 끈질긴 노력 끝에 2011년도 추경에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개인택시 18대, 법인택시 10대등 28대를 감차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일궈냈다. 물꼬를 튼 감차보상은 2012년도에도 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5대를 감차했고 올해도 개인택시 12대 법인택시 6대의 감차대상예산을 확보 법인택시 6대감차를 단행했으나, 개인택시는 희망조합원이 없어 2대감차를 했다. 현재 미집행 10대분은 법인택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조합은 1, 2, 3차에 걸쳐 시행된 보상감차사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여 계속해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조합의 보상감차 실현은 획기적인 조합현안 추진이라는 조합원들의 평가와 함께 사문화 대가는 전국시·도의 보상감차추진에도 촉진제가 되고 있다.

◇ 택시차량 현대화 추진

“택시승객을 위한 차량시설의 진화는 조합이 추진해야할 절대적 시설입니다.

영상기록장치, 카드결제기, 디지털운행기록계 등이 현대적 차량이 갖추어야 할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현실은 이들 장비를 자비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조합은 도비지원을 받아 해결하기 위해 거듭된 예산지원을 요청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제주도청은 관광진흥을 위해 택시가 해야할 역할을 인식하고 조합의 요구를 모두수용 순조롭게 장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현대화 사업추진을 설명하는 고 이사의 의지는 결연해보였다.

조합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원인분석을 과학적으로 증거를제시 분쟁을 해소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설치 보조금을 대당10만원씩 3억9천만원을 받아 4차에걸쳐 조합원 전차량에 장착했다. 또한 카드결제기도 2억3천2백30만원을 조합원 차량을 대상으로 장치가 진행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도 대당10만원씩 3억9천1백50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 오는 12월31일까지 전차량 장착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고영철 이사는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택시에 부착된 내비게이션 기능도 업그레이드 시켜 승객을 싣고 관광지를 지날때마다 화면을 통해 관광지정보를 알려주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국언어를 승객이 불편없이 대화할수 있는 피키펀과 분실물을 공지하여 쉽게 찾을수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늦어도 내년에는 실시 할수 있도록 도청, 경찰청을 상대로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브랜드택시 출범

조합원들의 운송수입 확대와 승객서비스를 위한 콜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조합은 2012년 제주도청으로부터 2억1천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서귀포시 조합원 253명이 운영하는 콜택시를 발족 시켰다. 또한 올해도 제주시 조합원 300명이 참여하는 브랜드택시를 만들기 위해 콜택시 도비지원 예산 2억1천만원을 확보하고 희망조합원이 선정 되는대로 브랜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브랜드 콜택시 사업을 제주도를 하나로 묶는 광역콜을 구상했으나 이미 서귀포시나 제주시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기존콜이 있어 분리추진이 불가피했지만 조합원 의견 통일이 되면 광역콜로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고이사는 설명한다.

제주조합 견인역할을 하는 이사 및 지부장



남부지부 이사 서상흠



남부지부 지부장 강성철



동부지부 이사 박금배



동부지부 지부장 강승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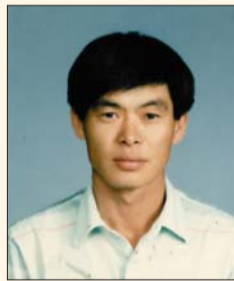
북부지부 이사 한영철



북부지부 지부장 김영주



서귀포지부 이사 원태성



서귀포지부 지부장 이이모



서부지부 이사 정성부



서부지부 지부장 전영배



중부지부 이사 김동오



중부지부 지부장 양공명

◇ 탄탄한 복지시설

직영충전소와 임대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조합은 임대충전소 시설이 노후되어 충전소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기왕에 교체를 추진하면서 제주도 동쪽지역 조합원들의 충전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2014년 1월에 그린충전소 임대를 확정했다.

제주조합은 직영충전소와 임대충전소를 통해 연매출 180억원을 올려 10%정도 발생하는 이윤은 판매경비(인건비)를 공제한 금액을 충전조합원에게 환원해 주고 있다.

충전소 운영은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하여 주는 복지 혜택 이외에도 정품 LPG를 공급 받을 수 있고 일반충전소와의 판매 경쟁을 통해 가격 인상을 더디게 하는 견제 역할도 한다. 또한 조합 직영충전소는 조합원들이 내소유 충전소가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하는 간접효과도 대단하다.

조합원은 충전소 경영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억원의 서귀포시 지부 사무실 건축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실, 정비실, 편의 시설 등을 갖춘 서귀포 지부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이 지역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조합은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양도·양수 중개소를 경영하고 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개인이 하게 되면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판매가격의 난립도 예방한다.

고영철 이사장은 “택시 면허가격을 조합이 양성화 시키는데에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어차피 감차 보상시 택시 가격이 노출돼야 하기 때문에 조합이 개입하여 공공성을 살려서 대당 7천만원까지는 면허 금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 택시의 연료다변화 추진

택시의 운송경비 중 가장 많은지출 부분인 연료값을 낮추기 위해 경유택시, 전기택시 등 다양한 차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료비가 가장 적게 드는 전기자동차를 택시로 사용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는 차량 가격이 월등히 비쌀 뿐 아니라 배터리 충전소 확대 등 택시로 사용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제주도청에 공문을 보내 전기 자동차 구입시 지원사항 등을 타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전국 16개 시도조합 가운데 유일한 관광특구인 제주도가 가장 적합한 점을 내세워 조합은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조합은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를 택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LPG차량을 구입하는 가격만큼 정부나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전기자동차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 조합원 능력 배양

제주조합은 밀려오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합원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입국하는 추세에 맞추어 조합원들에 대한 중국어 회화 능력 배양을 추진하고 있다.

전 조합원이 환영인사를 비롯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를 하고 있다. 조합 사무실 3층을 교육장으로 개조하여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조합원들이 편리한 시간에 나와 강사로부터 회화 교육을 받도록 교육 시스템을 준비하여 곧 개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피커피폰과 무료통화 서비스 체제 구축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차량내에서 승차 외국인, 운전기사, 통역사 등 3자간에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대상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7개국 언어이고 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까지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다.

'제주도가 관광지로 급발전하면서 현 부제 운영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부제 변경은 지난 춘계점검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나 관계 기관이 반대하여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우 근민 제주도시지사의 면담에서 부제 변경을 하여도 좋다는 약속을 받아 2014년 1월 1일부터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 이사장은 조합원의 휴조 편의를 위해 부제 변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 사고 예방 활동 강화

관광지 제주도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 유동인구가 증가한데다 렌트카 등 차량 운행도 빈번하여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제주조합은 이런 여건 속에서도 교통사고를 줄여 공제 경영수지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합원 안전운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고영철 이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조합원들의 조기 축구회 등 각종 체육 행사장과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는 국제공항 등을 찾아가 홍보물과 음료를 나누어 주면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전 조합원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공제 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까지 계속되던 적자 경영수지는 올해부터 흑자로 반전되었다. 9월 말 현재 1억 1천 3백만원의 경영수지가 개선되어 조합원들의 안전운전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글: 김관술〉



조합탐방

전남조합을 가다



지부의 업무역량 강화로

지부장 중심 복지 추진



“삶이 풍요로워지는 미래도시 건설을 도정방향으로 정하고 녹색전남을 꿈꾸는 전라남도”는 2백만 도민이 영산강 유역의 광활한 나주평야를 자랑하는 도민의 소망을 담아 ‘녹색전남’을 역동적으로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목포시를 비롯 5개시 17개군으로 총면적은 12256km²로 전국도의 12%를 차지할 정도다.

국토남단 전라남도 대중교통의 한축을 담당하는 개인택시 전남사업조합은 올해로써 창립29년을 맞는 청년이다. 목포, 순천, 나주, 광양 여수 등 5개시와 영광 군 등 17개군을 합쳐 22개 시·군을 24개 지부로 편성한 전남조합은 비록 창립역사는 짧지만 3974명 조합원의 단결된 화합은 16개 시도조합중 으뜸이라고 조합원들의 자긍심은 대단하다.

4천여명 가까운 1인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조합이 분열되지 않고 단결되고 화합하는 조합으로 거듭날수 있는 비결은 화합형인 김남완 이사장의 리더쉽 때문이라고 조합원들은 입을 모은다.

◇ 조합원 화합이 조합발전 에너지

“1인사업자 체제로 택시경영을 하는 조합원들의 운송경영에너지를 높여주는 비결은 조합원들의 단결과 화합입니다. 반대로 조합원이 분열하고 불평하는 환경에서는 경영효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단결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성공경영이 이뤄진다는 신념으로 조합경영의 가장 큰 덕목을 화합경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로서 15년째 전남조합 경영을 맡고 있는 김남완 이사장은 조합원 단합과 화합이 조합발전의 에너지라고 확신한다.

재7대 이사장에 취임 11대 이사장 까지 5선관록으로 통련하고 있는 김이사장이 조합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일구어 낼수 있었던것은 조합경영을 하면서 화합과소통에 중점을 두고 일관성있게 업무를 추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김이사장은 1999년 1월 제7대 이사장에 취임 하자마자 조합의 구태를 벗기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조합원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롭게 택시를 운행하려면 교통사고 처리를 전담하는 공제지부가 필수적인데 16개 시도조합중 전남조합만 공제지부가 없이 조합이 운영되고 있었다.

사업조합과 공제지부는 자동차의 앞 뒤 바퀴같은 존재임을 설득하면서 경영악화로 폐쇄된 공제지부 복원에 나섰다.

목포지부장시절 일수등 사금융에 시달리던 조합원을 설득하여 조합원이 100%참여하는 신용협동조합을 설립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공제지부 부활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행착오도 경험했다. 연합회를 힘들게 설득하여 공제지부를 유지했는데 설립첫해의 경영성과는 3520명의 조합원중 공제가입은 435명으로 저조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제지부가 정상화 되어 조합원들이 마음놓고 택시경영에 전념할수 있다고 설득하여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이사장의 끈질긴 노력은 조합원 설득에 성공 거의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제 지부를 재설립 6년만에 연합회 산하 16개 공제지부중 최우수공제지부로 선정되는 금자탑 을 세웠다. 공제지부 복원 성공 추진 과정에 동참한 조합원들은 김이사장의 성공 경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단결하고 화합하는 화합조합 기반을 만들었다.

◇ 지부역량강화로 조합경영

목포지부를 6년9개월 동안 경영하면서 지부의 역량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김이사장은 도조합 경영원칙을 24개지부 역량강화로 정했다.

택시면허 발급 등 도청이 갖고 있던 행정권한이 시·군에 위임되어 있고 도청은 극히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고 있어 도조합 운영도 행정추세에 맞추었다.

도조합은 5개시 17개군으로 되어있는 기초단체를 군단위는 1개지부로 하고 여수시와 광양시를 2개지부로 늘리고 목포, 순천, 나주시는 1개지부로 하여 모두 24개지부로 개편 지부별로 복지사업을 비롯한 조합원 운송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지부의 업무능력을 강화하는데 조합의 역량을 집중했다.

조합업무의 일부가 지부장 중심으로 이동되자 지부별로 운영성과가 나타났다. 조합원수가 687명인 순천시 지부는 2002년부터 LPG 충전소를 직영하고있고 2010년에는 시로부터 브랜드택시 사업으로 5억원을 지원받아 디지털운행 기록계, 영수증 발급기등 콜시스템을 완료 310대 규모의 미인콜택시를 출범운영하고 있다. 시지원 80%, 본인부담 20%로 출발한 브랜드택시는 176대가 증차되어 현재 480대로 브랜드택시 사업 규모가 커졌다.

또한 여수시를 비롯한 19개 시군지부도 26억175만원의 시·군지원을 받아 카드결제기, 디지털운행 기록계를 장착했다.

도내 조합 지부중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아직 장착하지못한 목포시와 진도·신안군 지부도 현재 시·군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 중이다. 또한 전남조합은 지부의 부품구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조합이

부품생산 업체를 선정 공장도 납품가격을 제시받아 시·군 지부에 가격정보를 전달해주고 구매는 지부가 직접하는 간접복지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도조합 중심 권익보호 추진

시·군지부와 연합회의 중간 위치에 있는 전남조합은 시·군 지부의 업무추진 능력 향상에 힘쓰는 한편 연합회와 합동으로 조합원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 그동안 도조합은 연합회와 협력하여 택시발전법을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올 겨울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개인택시 부가치세 면제등 한시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또한 전남조합은 광주시에 있던 조합사무실을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 남악신도시로 이전 업무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조합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전남조합은 일찌감치 법인택시 사업조합과 공동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올 4월 5일자로 중형택시 요금은 2,300원에서 2,800원으로 대형택시는 3,800원에서 4,200원으로 인상시켜 조합원들의 운송여건을 개선했다.

전남조합은 택시관련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 될것에 대비하여 24개 지부가 시·군을 상대로 감차보상을 조속히 실시될수있도록 조합과 시·군지부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 역량을 집중한다.

◇ 흑자공제 실현

“운송사업자에게는 공제(보험)은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공제는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는 조합원과 공제지부가 공동경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조합원이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공제지부는 신속한 사고처리로 손비지출을 최소화할 때 흑자경영이 실현됩니다.

흑자경영은 조합원의 공제 분담금을 낮추는 지혜입니다.” 김이사장은 폐쇄된 전남공제 지부를 부활 시킨 장본인이어서 공제 지부에 대한 기대도 남다르다. 김이사장은 조합원들 독려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갖가지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무사고 조합원에 대한 포상 ◆시·군 지역별 장기 무사고 조합원 시상 ◆실적,손익,교통사고 예방활동 분야 우수 지부 선정표창등을 매년 실시 조합원들의 안전운전 노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

또한 공제지부는 교통사고 소액사건은 신속히 처리 사고처리비용 절감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있다. 현장출동 서비스를 확대실시 하여 신속한 사고현장 확보로 사고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적게 반영되어 조합원이 유리한 사고처리가 되도록 지부 능력을 강화한다.

적자 지부의 불명예를 씻고 흑자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기위해 조합원과 공제 지부가 함께 노력하는 전남공제지부는 2012년 말에도 3억7천8백만원의 흑자를 실현한데 이어 2013년 8월말 현재도 2억8천5백만원 흑자발생으로 누적흑자금액이 19억9백만원을 달성 했다.

김이사장은 지난 8월 1일 전남 경찰청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업무 협약을 체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조합과 경찰청이 상호협력하여 교통사고를 줄여가는 안전운전 문화를 함께 만들기로 다짐했다.

<글 김관술>

전남조합 견인역할을 하는 지부장



김성훈 목포시 지부장



강희춘 광양시(동) 지부장



변동하 광양시 지부장



박두석 나주시 지부장



이해용 순천시 지부장



문관철 여수시(1) 지부장



문병은 여수시(2) 지부장



임종섭 구례군 지부장



고병무 곡성군 지부장



김길웅 담양군 지부장



장득호 완도군 지부장



이기한 장성군 지부장



안호군 장흥군 지부장



박정택 진도군 지부장



박승주 함평군 지부장



이원주 해남군 지부장



문형선 화순군 지부장



안수남 강진군 지부장



주용민 고흥군 지부장



한지현 무안군 지부장



이영석 보성군 지부장



이두식 신안군 지부장



소호준 영광군 지부장



김용수 영암군 지부장



이색국감질의 : 오병윤 의원

“택시 에어백 설치시 재정지원하라”



▲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가 대형참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택시의 에어백 장착을 꺼리고 있다. 2013년 8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신규 등록 차량 이면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 부터는 대폐차를 포함한 신규차량 부터는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에어백을 설치하면 장착비용이 자동차 생산원가에 반영, 가격이 상승 될것이고 이비용을 택시업계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경영난 심화등 많은 우려가 있다. 자동차사는 제조원가를 영업상 비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 모른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에어백 장착비용을 추가로 드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목표과제라고 할수 있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에어백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본다.

LPG 관련하여.

2007년도에 770원 하던 LPG가격이 현재는 1,060원에 육박하고 있다. LPG폭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택시업종이다. 2012년 3-4월달은 한달새에 가격이 100원이상 인상되면서 택시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LPG의 주된 수요층은 택시이다. 택시업계는 가격인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반면에 LPG수입사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때이다. 먼저 LPG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1. 최고가격제를 시행해야 한다. 가격이 급등시 정부가 일정부분 보조하여 가격안정화를 시행해야 한다.

2. LPG공급 독점과 국내 수요과정 개선을 위한 LPG 수습체계를 다변

화해야 한다. 사우디 아람코사에서 독점 공급하고 E1과 SK가스에서 대다수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17개사가 가격경쟁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LPG국제가격 등 원가를 공해하고 있다.

3. LPG 수입원가, 생산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수입시 원가와 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LPG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LPG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비싼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수입가와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다.

또한 택시연료의 다변화(다원화) 정책이 필요하다. LPG가격이 경유가격의 50%가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디젤차의 효율이 LPG차를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젤차의 연비효율이 LPG차의 두배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클린디젤’ 차량이 나오고 있다. 안정성이 검증되면 CNG차량 운행도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택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운전석 29.8%, 동승석 3.6%에 지나지 않아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반 승용차를 구매할 때 에어백의 존재유무는 주요 구매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 승용차는 기본으로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

택시 에어백 미장착으로 인한 사고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교통관련 주요 질의 내용

‘13. 10. 15. 국토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위원	주요 질의내용
이노근 위원 (새누리당,서울 노원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발전법안 관련(종합교통) ○ 택시의 디젤연료 사용에 대한 환경부 운영결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토부에서 CNG지원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종 확정된 것인지? 유종 다원화를 위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 CNG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태원 위원 (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구 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리콜 관련(자동차) ○ 리콜 시정조치 종료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동안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강석호 위원 (새누리당,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법 관련(종합교통) ○ 정부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택시법 관련현안 해결이 그렇게 어려워보이지는 않는데, 여전히 택시업계 4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국가가 「대중교통법」을 통과시킨 것은 택시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정책적 노력을 촉구한 것인데, 택시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협의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정부가 ‘자율감차 방식’을 통해 과잉상태의 개인택시를 감차하겠다는것은 추진가능성과 함께 정책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 택시업계는 DRT사업 등 정부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어려운 택시업계를 위축시키는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득전략이 있는지? ○ 우버(UBER)의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본적인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닌지? □ 대리운전 관련(종합교통) ○ 대리운전 업체가 나타난 지 15년이나 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대리운전’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것은 그야말로 방치가 아닌지? ○ 대리운전이 이미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각종 피해에 대해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지?

※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난 후 해당 부처에서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

교통안전공단

정기 검사시 서비스 확대 강화



▲ 이날 간담회에는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전국사업용자동차 관련단체가 참석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사업용자동차 운수단체 전문가 간담회』를 2013년 9월 27일 양재동 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한 택시, 버스, 화물 등 전국사업용자동차 관련 단체들이 참석하여 사업용자동차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자동차 관리와 관련한 교통안전공단의 업무 추진방안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교류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정부에서는 2012년 12월 18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사업용자동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폐지(2013년 12월 19일 부터 적용)”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하면서 정기점검 항목중 일부를 정기검사 항목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검사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산하 전국 검사소에서 수검하여 자동차의 안전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장했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전국검사소에서는 각종 센서진단, 엔진오일·브레이크오일·워셔액 보충, 기능종합진단서 발급 무료 서비스와 검사

일 안내, 차대번호 표기, 주행거리고장확인서 발급, 신규검사, 종합검사,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 임시검사(차령 연장 포함), 제작결함 신고 등 자동차검사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여객자동차 차령 만료일 안내 및 중대 교통사고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방안

개인택시 및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서 자동차의 차령 경과로 인한 폐차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차령만료일에 대하여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하여 본인 차량의 차령을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넷이 불편한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는 전화문의(1577-0990)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전복사고, 화재발생 사고, 사망자 2명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이상, 중상자 6명이상 등) 발생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임시검사를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받아 자동차의 제동력 및 하체상태 등 정비상태를 검사하여 중대 교통사고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보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안전하십니까?

어르신 보호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주름을 만드는 것은 세월 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있게 하고
우리를 키워낸 사람, 어르신

잠시 기다려 주는 여유와 배려하는 마음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거리를 만듭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3/4분기 주요 사업 추진실적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정부안 국회 제출

○ 국토교통부는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진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택시의 과잉공급해소,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13. 01. 24)하였음. 동 법률안 제명(題名)을 수정하여 제27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13. 06. 18) 되었으며, 이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13. 06. 24)하였고, 그 주요내용 및 연합회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안 주요내용

○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 또는 경영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 도입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고,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산정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택시의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는 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 및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택시운수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운행기록계와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운행정보, 택시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복지기금의 설치

개인·단체·법인의 출연금 등의 재원을 수입으로 하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 및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신설

택시서비스 제고를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택시종사자에 대하여는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택시운전업무 자격의 효력을 정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강화

연합회 검토 주요내용

○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수정

정부안은 심의내용 중 “택시면허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기존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면허 등록제, 양도·양수 금지 등) 제도 개선이

포함 될 수 있으므로 면허제도, 양도·양수 금지 등 택시사업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의내용은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만을 심의하도록 명문화

-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에 관한 사항
- 사업구역 조정정책에 관한 사항
-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내용 수정

- 정부안의 기본계획 내용 중 “택시면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이나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등은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경우 택시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도개선과 구조조정이 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기본계획에서 삭제시키고, 다음 사항만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명문화

- 택시운송사업의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여건 및 동향 전망에 관한 사항
- 택시 및 대중교통 수단 간의 수송분담률의 현황 및 목표
- 택시교통시설 및 택시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 택시 이용정보의 제공 등 택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 택시 공급 및 수요 현황 및 향후 공급조절 계획
-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택시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 그 밖에 택시서비스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항목에 추가

- 택시차량 제한으로 인한 대·폐차 비용 중 일부 지원

○ 사업구역별 현 택시 총량제 산정방식의 개선

- 중·소도시는 대기영업 운행이 대부분인데 택시총량제 산정방법에서 거리실차율만 적용 받고 시간실차율은 적용 받지 못해 공급과잉 초래함으로 시간실차율 추가

○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반대

-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종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이용토록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행정규제 임.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위배됨.
-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목적이라는 이유로 과속 등 속도위반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택시에 행정처분 할 수 있어 민원 증가 예상
- 공공목적이라 할지라도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종사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택시영업과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이용되어야 함에도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목적이라는 이유로 택시운행정보 운영을 관리시스템 구축에 반대 함.

○ 복지기금의 설치 단체를 택시운송사업자 단체에서 국가, 유류카드사(신한, 현대, 롯데), LPG 업계 등으로 변경

- 유류카드사(신한, 현대, 롯데), LPG업계, 택시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 지원, 정부의 예산안을 기초로 하여 복지기금 조성하도록 명시

○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신설 반대

-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친절 행위는 택시산업의 불황에 기인하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운전자 처분 강화만으로 해결은 불가능 함.
-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위한 제도장치가 우선 마련(택시 산업의 정상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추가사항

- 택시 감차보상 근거 마련
- 택시운임·요금의 2년 정례화(정부물가관리품목 대상에서 제외)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내 택시 통행 허용(택시가 여객교통수단이라는 특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제 삭제)
- 택시연료가격 안정화(연료 다변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여 가격안정화)
- 차량환경점검제도 조합 위탁
- 불법여객운송행위 처벌 강화(콜밴, 렌터카, 자가용의 불법여객운송행위 강력 규제) 등

회장,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대한상운회장,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 KT금호렌터카 대표

주요 건의내용 (개인택시 업계)

○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 TF 관련 감담회 자료

- 택시공제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TF』에서 공제조합 법인화, 금융감독원으로 감독권 이전, 시·도조합이사장의 공제조합지부장 겸직 금지, 경영평가제 도입 등에 대하여 반대

2 택시연료 다변화(CNG, 클린디젤)를 위한 추진사항

○ 연합회는 CNG택시(개조 및 충전소 설치 등) 추진에 따른 2014년도 정부예산 편성 반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께 아래와 같이 수 차례 건의하였던 결과 정부예산으로 CNG 개조 및 충전소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회 통과가 예상됨.

일정	추진사항
'13. 08. 26	연합회 안민석 국회의원실 방문 CNG택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 건의서 제출
'13. 08. 26	연합회, 대구개인택시조합이사장 등 CNG 예산 지원과 관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방문
'13. 08. 27	연합회 정성호의원실, 류성걸의원실 방문 CNG택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 건의서 제출
'13. 08. 30	연합회 CNG 예산 지원 관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방문
'13. 09. 06	연합회, 대구개인택시조합이사장 등 CNG 예산 지원 관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방문
'13. 09. 25	국토부 보도자료 : CNG 개조(3억원)와 충전소 설치(1.5억원)

○ 연합회는 클린디젤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건의를 위한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국 환경에너지세제과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 임.

일정	추진사항
'13. 09. 24	연합회 기획재정부 방문 클린 디젤 택시 유가보조금 전액 지급 건의
'13. 09. 25	연합회 기획재정부 방문 클린 디젤 택시 유가보조금 전액 지급 건의
'13. 09. 30	연합회, 국토교통부 종합정책과, 택시산업팀장, 대전·충남개인택시 조합이사장, 조합원 등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장, 사무관 면담
'13. 10. 01	개인택시연합회 및 법인택시연합회,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장 등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국장, 환경에너지 세제과장 면담

3 국토교통부 간담회

□ 여객운수단체장 및 업계대표,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3. 09. 13(금), The-K 서울호텔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장관, 교통물류실장, 종합교통정책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교통정책조정과장, 대중교통과장 (업계)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경기대원고속회장,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금호고속 대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

□ 택시업계4개 단체대표와 국토교통부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3. 08. 19(월), 용산파크타워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택시산업팀장, 택시사무관(업계)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전국택시연합회장, 전국 택시노조 연맹부위원장, 전국민주택시노조위원장

간담회 주요내용	결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입 반대	택시업계도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자동차대여사업 운전자 일선 확대 및 가맹사업 도입 반대	렌터카업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렌터카 발전방안의 일환 임. 상임위, 법사위에서 논의 될 것으로 예상
우버의 시장진출에 대하여 장력 대처	국토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달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요건 완화 반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요건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제기하면 검토 하겠음.

□ 개인택시업계와 국토교통부차관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3. 07. 05(금) 연합회회의실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차관, 교통물류실장, 종합교통정책과, 택시사무관 (연합회) 연합회장 및 시도조합 이사장 등 36명

주요 건의내용	국토교통부 답변
개인택시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개인택시 대리운전제도 개선 - 차량환경점검제도 개선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내 택시통행 허용 - 개인택시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 - 개인택시 발생주차 단속 제외 - LPG부탄 가격안정화, 택시연료 다변화 - 택시감차 및 운임 인상 - 택시감차 보상금 정부예산 확대 등	- 대중교통법이란 택시발전법이란 중요한 것은 택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업계의 협조임. - 정부는 이번 기회에 택시문제를 모두 꺼내 놓고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제대로된 대책을 만들려고 함.

□ 개인택시업계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3. 05. 22(수) 연합회회의실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택시사무관 (연합회) 연합회장 및 시도조합 이사장 등 20명

주요 건의내용	국토교통부 답변
- 대중교통법 재의결 - 택시감차 감차요구 - 양도·양수 3회 제한, 상속 금지 등 폐지 - 70세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폐지 - 개인택시 부가가치세면제, 연료다변화, 콜합콜 문제 제기, CNG 자동차 제작 등 건의	- 대중교통법 정책반영 관련 -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 - 대안제시 요청 - 하위법령에서 검토할 사항 -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는 농어촌 지역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도입, 자동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원칙적 허용 및 자동차 대여가맹사업 제도를 도입 등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13. 06. 24) 하였기에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 공동명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교통위원장,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전문위원회에 강력히 건의('13. 08. 13) 하였다.

문제점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이 도입 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버스는 물론 택시도 여객수요가 감소하여 교통수단이 사양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업종 도입은 택시를 말살시키는 정책임. 새로운 업종 도입으로 여객업종간 분쟁 촉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을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 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택시업계에서 국회청원으로 운전자 알선 금지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도외시 하는 것은 물론 여객운송질서를 문란시키는 정책임. 지금도 영세한 렌터카 업계는 여객운송질서 문란과 사회문제 야기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 금지규정을 현행대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대여사업 가맹사업제도가 도입 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사업 도입은 오히려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 가맹점을 운영한다 하여도 서비스 및 가격경쟁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가격담합 등 부작용이 우려 	자동차대여사업 가맹사업제도의 도입을 반대

□ 민주당 윤후덕의원 등 20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13. 08. 22)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희망택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노선 여객자동차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구역 여객자동차를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운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민주당 박완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이장우의원 등 17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13. 06. 24, 05. 03)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사유를 법률에 명시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적극 대응

□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3. 07. 04)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국토부에 건의 하였음.

주요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의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대상 및 승차정원 완화
 - 현행 규정상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을 학생의 등하교나 교육 목적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를 소유하여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

-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을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 이용자의 등·하교나 시설이용 목적을 위하여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13세 미만 이용자)에서 소유하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을 9인승 이상으로 완화하여 어린이 사망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

○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대상을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승차정원을 완화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을 위해 개선하고자 함.

문제점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행질서 문란) 현행 자가용유상운송 허가대상 차량을 26인승 이상에서 9인승이상 승합차로 확대할 경우 9인승 이상 및 15~25인승 승합차 약 100만대의 자가용 자동차가 유치원 또는 학원에 유상운송을 위한 근거를 두고 불법여객운송영업 행위 증가, 여객운송 운송질서 문란 	현행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소유하여 운행하는 통학버스로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학차량 안전강화) 국회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등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가 입법발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근본대책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버스 불법운영) 현행 전세버스의 지입차량이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근·통학 정기적 노선버스 운행 등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과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가용운송 허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자가용지입차량 증가가 예상됨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님. 	

□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노사 4단체 명의로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허용을 “9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까지 완화”하고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 건의서를 제출('13. 08. 13) 하였음.

6 대리운전업법안 의원입법 발의

○ 민주당 이미경의원 등 18인이 입법발의('13. 07. 29), 민주당 문병호의원 등 12인이 입법발의('13. 07. 04) 하였으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미경 대표 발의, 문병호의원 대표 발의

-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
-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대리운전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이용자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함.
-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 함.

○ 음주 후 대리운전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지난 20년간 대리운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대리운전이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음. 그러나 대리운전업체의 난립과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자격,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대리운전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운영으로부터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공포

□ 뱅형화물자동차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새누리당 박성호의원 등 10인(12. 09. 25), 민주당 배기운의원 등 10인(12. 11. 27)이 대표발의 의안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12. 04. 25), 이를 통합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 04. 25) 되어 공포(12. 07. 16) 됨. 이에 따른 하위법령이 개정 되어 시행될 경우 뱅형화물자동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가 근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추진사항
박성호의원 대표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에 미터기를 부착하거나 지붕 위 갖등 또는 빈차표시기 등을 설치 금지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에 요금미터기 등 택시 유사표시 행위 금지 ● 뱅형화물자동차 사업자는 화주에게 영수증 발급 의무화
공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를 취소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송종사자격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공포(13. 07. 16) 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코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13. 09. 13)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 ▶ 운송사업자가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에 대하여 1차 운행정지(60일), 2차 감차처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 ▶ 운수종사자가 위반한 경우 1차 자격정지(60일), 2차 자격취소 - 법률에서 위임한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 ▶ 외부표시등 장착 ▶ 차체에 택시모범 등 문구 표시

택시 미터기 조작, 콜밴 화물차 불법 장착 근절

연합회 · 한국택시미터기협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택시미터기 업계를 대표할 '사단법인 한국택시미터기협회'가 창립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보여 이목이 주목된다.

(사)한국택시미터기협회(www.taximeter.or.kr)는 2012년 2월 고유번호증을 인가 받고, 그 해 5월 13일 창립설명회 및 총회를 시작으로 택시미터기 관련산업의 공공성 강화, 사업자의 업권보호와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협회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택시미터기 관련업체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 회장은 협회 창립을 주도해 온 권영우 대일미터 대표가 맡고 있다.

권 회장은 “그간 관련업계는 친목단체 형태의 모임은 있었지만 명실상부하게 업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다”며, “대한민국 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운송사

업의 근간을 지키는 택시미터기 및 관련 장비의 보급과 수리, 안정성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낙후된 환경과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악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소외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대외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협회가 그 중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택시미터기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업무 전산화 지원,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정책지원 사업, 회원사의 경영컨설팅, 인재양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권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장착에 따른 택시사업자의 비용절감, 설치간소화, 안정적인 A/S 등을 위해 택시조합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11월에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DTG업그레이드 작업을 과천대공원주차장에서 성공리에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짧은 시간에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수리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민원발생 없이 진행된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다가오는 서울시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미터기 개정작업 역시 공동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주요 3개소에 장소를 마련하고, 서울시 및 서울개인택시조합과의 업무협약도 마친 상태이다.

현재 서울 위주로 회원사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전국에 있는 관련 업체까지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협회 문은 열려 있으며 언제든지 관심 있는 업체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권 회장은 설명했다.

또한 사라지지 않는 택시미터기 조작문제와 콜밴의 미터기 불법장착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는 미터기 장착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대해 극적인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를 강하게 제시했다.

한편 연합회 담당 실무자는 한국미터기협회의 설립취지에 원칙적으로 동감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립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한국택시미터기협회의 다양한 활동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택시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장착, 택시요금인상 등 현안 문제에 사단법인 한국택시미터기협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계약업무실무과정 교육현장을 가다



공제조합의 서비스는 조합원과의 계약에서부터 시작된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가입 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운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처리를 통하여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업무는 공제조합 업무의 시작이자 서비스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계약업무 담당직원들은 조합원과의 계약기간 관리에서부터 분담금 수납, 할인할증, 공제가입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신상변동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제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도 계약업

무 직원들의 빼놓을 수 없는 업무 중 하나이다.

계약업무 담당 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관한 지식도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만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제조합은 계약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개정된 법률, 이론 등을 직원들이 빠르게 습득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차질이 없도록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계약업무교육은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본부 및 지부의 계약업무 담당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보험연수원에서 진행됐다.

교육은 보험계약법 및 공제약관, 자동차보험이론 및 관련법규, 분쟁사례, 계약업무 CS의 총 4개 과목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 시간에는 평가가 실시되어 참가 직원들의 학습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을 끝으로 모든 교육일정이 마무리 됐다.

각 과목의 강사들은 현재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전임교수들로 구성되어 진행됐으며,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사례 분석을 매 과

목마다 함께 진행하여 직원들에게 한층 더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교육에서는 또한 대고객 응대와 상담이 많은 계약업무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타 교육에 비해 보다 강화된 CS교육을 실시하여 참가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CS교육은 단순 친절교육이 아닌 실제 계약업무 직원들이 고객들을 응대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과 대처법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꾸려져 예년에 비해 교육생들의 참여와 반응이 더욱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올해 계약업무 교육은 3일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공제조합의 교육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된다. 매년 더 나은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제조합과 열과 성의를 다해 교육에 참여하여 습득한 모든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 현재도 업무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의 에너지가 어우러져 더욱 발전되고 활기찬 공제조합의 미래가 열려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취재를 마무리 했다.

장시간 운전 피로, 한방에 날리자!



휴식 없이 장시간 운전석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근육이 긴장되고 신진대사가 골고루 이뤄지지 않아 온몸이 뻣뻣해지고 피로감이 몰려온다. 그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장시간 운전으로 지친몸을 깨울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소개한다.

1. 목관절 및 목 뒤 근육

정면을 보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당겨 오른쪽으로 목방향으로 끌어내린다.

양쪽을 각각 10초씩 3~4회씩 반복한다.

2. 어깨

팔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내린

채 숨을 깊게 들이쉬고, 양 어깨를 위쪽으로 끌어올린다.

10초 정도 동작을 유지한 후 숨을 내쉰다.

4~5회 반복한다.

3. 팔 근육

한쪽 팔꿈치를 90도로 굽히고 반대쪽 손으로 굽힌 팔꿈치를 감싸 쥐고 천천히 힘껏 반대편으로 당겨서 5초 정도 유지한다.

이때 얼굴은 당긴 쪽과 반대로 향한다.

4. 허리와 등

숨을 들이 쉰 채 허리를 곧게 세

운 상태에서 활처럼 가슴 앞으로 휘다 생각하고 등을 앞으로 쪽 민다.

10~15초간 숨을 참고 내쉰다. 3~4회 반복하면 좋다.

5. 허벅지와 뒷다리

한쪽 무릎을 팔로 안아 가슴 쪽으로 당긴다.

발목과 발등을 곧게 펴거나 혹은 발목을 당겨 5~10초 정도 유지한다.

3~4회 반복한다.

8월 1일 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경찰청은 8월 1일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며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무위반·무사고 실천서약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서에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받게 되며 마일리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만약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10점이 감경되어 면허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벌점이 50점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서약서의 내용을 1년간 이행한 후 매년 서약내용을 갱신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 점수는 누적되어 적립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무위반이란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비치된 무사고, 무위반 서약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신청가능하며, 1년간 서약 내용을 이행한 경우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법규교육 이수 시에도 벌점 감경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외에도 1년에 한 번은 면허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 교육 4시간을 이수할 경우 처분벌점 및 누산점수 최고 20점 감경으로 운전면허정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교육대상은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분벌점이 40점미만자)으로 1년 이내에 교통법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벌점 39점을 받은 사람이 교통법규 교육 4시간을 미리 수강하면 20점이 깎여 벌점을 19점으로 유지할 수 있다.

◆ 교통법규교육(벌점감경교육) 일정표

구분	1주	2주	3주	4주	교육시간	비고(연락처)
서울	강남	금			10:00-15:00	02-3498-2021~9
	강북		금		10:00-15:00	02-3392-5622~3
부산	월				14:00-18:00	051-629-9162~74
대구	금				13:30-17:30	053-659-9162~9
인천	월				18:30-22:30	032-830-6162~8
경기	용인	목			10:00-15:00	031-8006-1122~5
	의정부	화			10:00-15:00	031-876-0820
강원	춘천	화			09:00-13:00	033-250-9151~3
	강릉	월				033-652-7950
충북		수			13:00-17:00	043-717-7171~7
대전·충남		화			13:00-17:00	042-520-0171~3
전북				월	13:00-17:00	063-281-6141~4
광주·전남	목				13:00-17:30	062-530-6182~3
경북	화				13:00-17:00	054-478-6161~2
울산·경남			목		14:00-18:00	055-270-6131~40
제주	수				18:30-22:30	064-710-9141~2

※ 교육일정은 지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 참석 전에 일정 확인 바람)

■ 가을철 산행시 주의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되면 야외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산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을산은 어느 때보다 멋지고 아름다워 산을 찾는 분들이 선호하지만 그만큼 주의할 점들도 많습니다.

1. 날씨 체크

가을은 계절의 특성상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일몰시간 역시 짧아지기 때문에 날씨를 꼭 체크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단풍이 무르익을 10월의 월 평균 기온은 15도 내외로 활동하기엔 가장 알맞은 기온을 보이지만, 아침저녁의 일교차가 무려 10도 내외라 낮 기온만 아니라 밤 기온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등산은 옷갈아 입기 운동이라 불릴 정도로 상황에 맞는 의류의 착용이 중요합니다. 운행 중에는 몸에 열이 많이 발산되어 비교적 가벼운 복장이 여야겠지만 휴식 및 식사 중에는 체온이 급격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의류를 걸쳐 입을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을산은 일교차만 아니라 산은 높이에 따라서 기후가 자주 바뀌며 산의 고도에 따라서 산행 중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생각할뿐만 아니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얇은 옷을 여러벌 겹쳐 있는 것이 좋고 땀흡수가 잘되며 건조가 빠른 기능성 소재의 의류를 입는게 좋습니다.

2. 등산에 맞는 복장과 여분의 옷 준비

3. 배낭준비

가벼운 산행이라고 하지만 배낭은 챙기는게 가장 좋습니다. 배낭은 중요한 물건들을 수납하는 기능만 하는게 아니라 등산할 때 무게중심을 잡아주기도 하고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배낭을 꾸릴때 하중이 등 전체에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고 무게를 적절하게 조절하는게 좋습니다. 허리부분엔 부담이 안가게 침낭이나 텐트등 부드러운걸로 넣어주시고 그 위는 딱딱한것으로 넣어 체감 하중과 허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게 좋으며 배낭 외부에 물건을 묶어 운행하는 것은 안정성이 떨어지며 나뭇가지에 걸려 불편해 질 수 있어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4. 등산화 준비

야외활동에 알맞은 의류나 배낭의 착용도 중요하지만 산행시 적절치 못한 의류나 배낭으로 인해 곤란해 지는 것보다 산길에서의 미끄러짐이나

실족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은 듯 합니다. 따라서 밧발의 일반 운동화 보다는 요철이 되어 있으며 발목을 지지할 수 있는 등산화의 착용하는게 좋습니다.

5. 체력에 맞는 산행

등산 중에 체력적인 한계를 느낀다면 정상까지 무조건 오르는것보다는 천천히 하산을 하는게 좋습니다. 등산 인원은 사고 상황을 대비해서 최소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게 좋으며 산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기준으로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산을 잘 타는 사람을 쫓아가려다 보면 무리할 수 있고 이는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분배는 올라갈때 40% 내려올때 30%로 분배하고 30% 정도는 예비 체력으로 저장하는게 좋다고 하나 이를 개량화 수치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본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탐방

함덕 · 삼화콜 축구 동아리

한지붕 두가족이라... 건강도 친목도 배가 되지요

제주도 함덕콜 축구동아리와 삼화콜 축구동아리팀은 독자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면서도 매주 같은 축구장에서 운동을 할때는 한가족이 되는 한지붕 두가족이서 화제다.

제주도 함덕면에 거주하는 함덕콜 조합원 으로 구성된 함덕콜 축구동아리(회장 이재덕)와 삼양동과 화북동에 거주하는 삼화콜 조합원으로 구성된 삼화콜 축구동아리(회장 홍정배)는 이웃 사촌들이다.

함덕콜 축구동아리 회원은 30명이고 삼화콜 축구동아리 회원은 40명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70명의 축구동아리다.

두 동아리팀이 전용구장을 물색하다보니 두팀 모두 삼양구장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축구장 사용시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욕신각신하는 해프닝도 발생한다. 유여곡절 끝에 생각해낸 해결책이 한데 어울려 같이 운동하는 방법이 었다.

축구동아리 운영은 따로따로 하지만 축구는 서로에게 상대팀이 되어 시합을 하면서 운동하기로 의기투합하고 나니 운동장 사용시간을 놓고 벌였던 신경전은 눈녹듯 사라졌다.

이렇게 시작된 한지붕 두가족의 축구사랑은 올해로써 10년이 넘었다.

매주 화요일이면 오후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두가족은 축구시합을 하면서 건강도 다지고 친목도 키워나간다.

경기규칙에 따라 하는 시합인데다 이겨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긴장이 도기도 하지만 전.후반 90분 동안을 한데 어울려 뛰다보면 유니폼에 땀

흠뻑 젖는다.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지만 시합이 끝나고 나면 두팀 모두에게 승.패의 기록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매주 축구경기를 통해 운동을 하면서 회원모두는 공을차면 재미있고 공을차면 운동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을 잘뿐이지 이기고 지는것은 의미가 없지요.’ 함덕콜 축구동아리 공영덕 총무는 하체에 근력을 키우기 위해 공을 차고 있다고 말한다.

함덕콜이나 삼화콜이나 동아리 운영은 5천원씩 받는 월회비로 한다.

매주 2시간씩 사용하는 구장사용료 2만2천원을 지불하고 운동할 때 마시는 음료수 정도의 경비만 쓰는 알뜰살림이다. 하지만 회원끼리 애경사 상조는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호형호제하는 호칭만큼이나 각별하게 챙긴다.

평소에는 한달에 5,000원 걷는 회비로 알뜰살림을 하는바람에 운동이 끝난후 흔한 뒷풀이 회식을 앓고 아쉽게 헤어지지만 1년을 결산하는 송년회만큼은 성대하게 치룬다.

두팀 회원 70여명이 모이는 회식이어서 먹거리도 돼지 한 마리를 잡을 정도로 푸짐하다.

‘3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참가하는 연령대여서 형님, 아우로 깎듯하게 호칭하며 상·하의 위계질서를 세우지요. 그래서 1년을 결산하는 송년회 때는 대가족의 모임이 됩니다.

허물없이 한데 어울려 회포를 풀기로 하고 운전대를 잡고 느꼈던 경험담이나 가정사를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즐기다보면 어느새 친목은 두텁게 쌓



▲ 함덕축구회 이재덕 회장



▲ 삼화축구회 홍정배 회장

이지요.’ 삼화축구회 홍정배 회장은 한지붕 두가족이 모이는 동아리라 재미는 배가된다고 말한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독자적 운영을 하면서 축구경기만 함께하는 동아리 모임이지만 함께 어울리면서 운동을 하고 건강을증진시키고 친목을 돈독히 키우다 보면 한가족이 돼간다.

☎ 문의전화 (삼화콜회장 010-5107-5509)
(함덕콜총무 010-6682-2334)

<글. 김관술>



▲ 한지붕 두가족으로 축구 동아리를 꾸려가는 함덕삼화 축구회원들

건강상식

몸의 순환 도와주는 가을철 운동

가을철 운동은 무더운 여름동안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고 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높아진 하늘과 쾌적한 날씨로 운동하기 안성맞춤인 가을철을 맞아 건강한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자.

◆ 성인병 환자는 미리 운동 처방 받아야

가을은 운동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지만,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인 만큼 면역력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도 가을에 운동을 시작한다면 요령이 필요하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절과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몸에 맞는 운동 강도와 빈도, 시간 등 운동 처방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 새벽 운동 피하고,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은 필수

운동은 하루 중 어느 때 하더라도 좋지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기온이 낮은 새벽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은 새벽이나 저녁 이외에는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려우므로, 새벽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운동을 마친 후에는 마무리 운동을 하여 혈액순환, 심박수, 혈압 등을 운동 전 상태로 되돌려 놓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무리 운동은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 천천히 걷기 등이면 충분하다.

◆ 등산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을철 운동으로 적합

걷기를 비롯해 등산, 조깅, 자전거 타치,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이 가을에 하기 좋다. 걷기는 관절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노약자나 심장병 환자, 비만인 사람에게도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

특히 등산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무릎이나 허리 등의 관절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좋은 운동이다.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 건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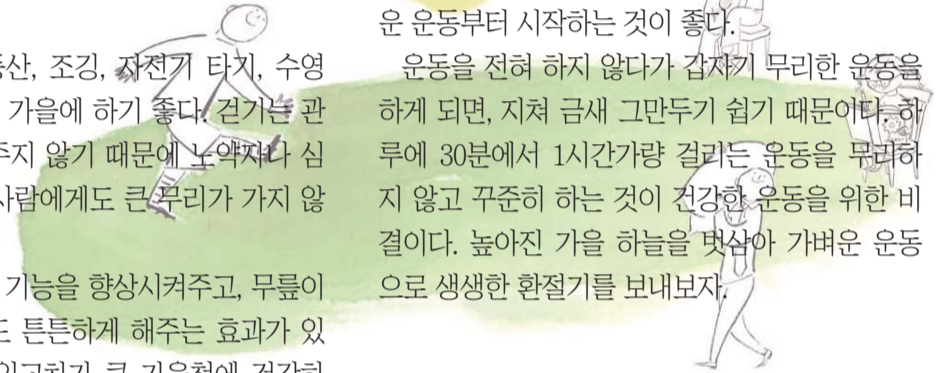
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얇은 옷이나 노출이 심한 운동복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서늘한 날씨에는 운동을 하면서 흘린 땀이 빠르게 식어 감기가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동을 할 때에는 가급적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도록 하는 것이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운동은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도가 높은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지쳐 금세 그만두기 쉽기 때문이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리는 운동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한 운동을 위한 비결이다. 높아진 가을 하늘을 벗삼아 가벼운 운동으로 생생한 환절기를 보내보자.



“신규사업자 양도 양수 인정하라”

전국개인택시 권리찾기협의회...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항의집회



▲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신규사업자에게도 양도 양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라고 시위를 벌이는 전국개인택시 권리찾기협의회 회원들 모습.

2009년 11월27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모임인 “전국개인택시 권리찾기 협의회” 회원 6백여명은 9월3일(화)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정부종합청

사 민원실 앞에서 ‘여객운수사업법 제14조3항 및 제15조1항’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신체가 쇠하면 정부에 아무런 보상없

이 면허를 반납하는 모순된 법조항의 개정을 위해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사업자와 차기년도 신규예정자 1천6백여명의 대표자 6백명은 ‘여객운수사업법’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시 정부청사로 집결해 개인택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쫓겨하는 것이라고 밝힌 오경화 회장은 2009년 11월 27일 이후 신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와 상속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 때문에 평균 13년간 오직 개인택시 사업자가 되기 위한 희망으로 장기 무사고와 성실의무조항을 준수하여 엄정한 법의 규정대로 경쟁에 의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은 경과규정도 없는 법개정으로 인해 양도와 상속이 금지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11월 27일 시행 된 신규개인

택시의 양도. 상속금지규정은 개인택시 면허의 일몰제를 통해 택시숫자의 감차를 위해 개정되었으나, 법개정 후 3년간 전국에서 소멸된 개인택시면허는 단 13대에 불과하다며,

소멸 사유로는 ▲사고사 ▲질병사 ▲생활고 비관에 따른 자살 등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감차효과는 찾아볼 수 없고 신규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좌절만 깊어가는 상황이고, 신규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사업자의 경우 양도, 양수, 상속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엄정한 조건하에 허가받고 있는 개인택시만 양도와 상속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정부는 양도와 상속이 제한 받는 관련 법률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 하였다.



기본사양 확대로 더욱 편해졌다 THE NEW K5 택시

1

10Way 파워시트

운전석 시트의 높낮이 및 등받이 각도 등을 전동식 10Way 방식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장시간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허리지지대

2

안락함과 쾌적함이 향상된 시트



앞좌석 히트드 시트



앞좌석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운전석 통풍 시트 (선택품목)



착좌감 개선 및 내구성이 강화된 신규 시트 (인조가죽시트 기본 적용)

3

고객 선호 편의품목 확대 적용



- ① 자외선 차단글라스
- ② 후방주차보조시스템
- ③ 운전석 에어백
- ④ LED 사이드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미러
- ⑤ 스티어링휠 오디오 리모컨
- ⑥ CDP 오디오(MP3 재생) AUX & USB 단자
- ⑦ LED 보조제동등
- ⑧ 폴딩타입 무선도어 리모컨키
- ⑨ 스티어링 휠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 본 광고에 수록된 제품 색상 및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광고에 수록된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Power to Surprise

세계 유명 디자인상을 휩쓴 K5가
당신의 자부심을 완성시켜 드립니다

